

3. 축사- 성백효 선생

우선 여러분의 졸업과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학자(漢學者) 성백효(成百曉)입니다. 제 스스로 한학자라고 칭하는 것은 낯선스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한문학 박사도 아니고 딱히 신분을 밝힐 만한 것이 없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축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언감생심 난색을 표했습니다만, 한편 생각해보니 제가 80년도 초에 이 학교 국사학과에서 한문강독을 시작하여 약 15년 동안 계속하였습니다. 그때 함께 공부한 분 중에는 교수로 계신 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 강좌를 개설하여 오후에는 학부 학생들을, 야간에는 석박사 과정생들을 대상으로 《논어》·《맹자》와 《통감》·《고문진보》·《시경》·《서경》 등을 강독하였으며, 뒤에는 역사교육학과에서도 강독했습니다.

이때는 전두환 정권이어서 데모가 자주 벌어졌으며, 데모가 있는 날이면 버스도 택시도 일체 교내 진입이 불가능했습니다. 길바닥에는 최루탄 가스가 널려 있어 그야말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때로는 뒷걸음질을 하여 촛불아래 강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연정이 깊습니다.

촌사람인 제가 케케묵은 사교의 한학자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옛말에 ‘무식한 나무꾼의 말도 성인은 가려듣는다.’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열강들에게 짓밟혀 왔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어 일제에게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였고, 열강들의 힘에 의해 해방이 되다보니 남북이 분단되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해방동이입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가난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직 경제만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와 도의정신을 경제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여지없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되돌아보면 우리의 경제 성장이 눈부시게 발전하였지만 과연 우리의 생활이 행복합니까. 이혼과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첫 번째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상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지금이라도 도덕성을 되찾지 않으면 영영 불행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옛날 북송(北宋)의 명재상인 범중엄(范仲淹)은 선비가 조정에 있으면 행여 군주가 잘못할

까 걱정하고, 초야(草野)에 있으면 행여 백성들이 잘못될까 걱정한다. 그리하여 천하의 걱정을 먼저 걱정하고 천하의 즐거움을 뒤에 즐거워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선우후락(先憂後樂)’ 이라 합니다. 정치가는 국민들이 모두 행복하고 나서 행복을 누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보면 올바른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행복은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조대왕 때의 학자인 성대중(成大中 1731~1809)은 《청성잡기(靑城雜記)》〈참된 복〉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에는 다섯 가지 등급이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선을 많이 행하고서 부귀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최상이고, 부귀가 좀 부족한 경우가 그 다음이며, 선도 많이 행하고 부귀도 많이 누리는 경우가 또 다음이고, 선은 별로 행하지 않고서 부귀만 많이 누리는 경우가 그 다음이며, 선을 전혀 행하지 않고 부귀만 많이 누리는 경우가 최하이다.……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복의 터전을 쌓는 사람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잘 풀릴 수도 있고 잘못 풀릴 수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여 권력을 잡고 돈을 버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되 성공은 자연에 맡겨 정당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과 지위를 얻었으면 자신이 남들보다 먼저 잘살겠다는 생각보다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자세가 필요하며,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있어도 있는 체하지 말고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며 겸양해야 합니다. 겉으로 꾸미는 겸양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겸양 말입니다. 《주역(周易)》의 64괘(卦) 가운데 모두가 길한 것은 오직 겸괘(謙卦) 뿐입니다. 겸괘는 바로 겸손함을 말한 것입니다.

《노자(老子)》에 ‘대지약우(大智若愚)’ 라 했습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인다.’ 는 말입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여 오만방자한 태도야말로 자신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논어(論語)》에도 ‘무벌선(無伐善)’ 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잘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품(人品)도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선현들의 이름이나 호(號)에도 ‘우(愚)’ 자가 자주 쓰여졌습니다. 북송의 성리학자인 이천(伊川) 정이(程頤)는 맹자(孟子)를 일러 영기(英氣)가 너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기는 영특한 기운으로 총명하여 머리 회전이 빠르고, 언변이 좋은 것을 말하니

다. 우리들은 영기가 없어서 한(恨)입니다. 그러나 이천은 영기를 비판하고, 공자(孔子)의 제자 안연(顔淵)처럼 혼후(渾厚)한 덕을 강조하며, 이것을 옥(玉)과 수정, 얼음에 비교했습니다. 옥은 본래 따뜻하고 윤택한 촉감이 있는 반면 수정이나 얼음처럼 반짝이는 광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영재들이십니다. 총명한 자질과 어느 정도 부(富)를 이미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남을 비판하기 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표본이 되시어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총장님 취임식 때 ‘양사보국(養士報國)’이란 글을 써드린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선비를 길러 국가에 보답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겸하여 대학(大學)은 선(善)을 앞장서서 숭선하는 곳이요 선비는 나라의 원기(元氣)이니, 선비들의 취향이 올바르면 나라가 번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원기가 충만해야 몸이 건강하고, 나라는 선비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번창합니다.

부디 한 개인의 행복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인간 본연의 심성을 되찾아 주시기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복의 터전을 쌓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만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8. 28.

해동경사연구소 소장 성백효